

여행산업

여행업계 넘버 3 의 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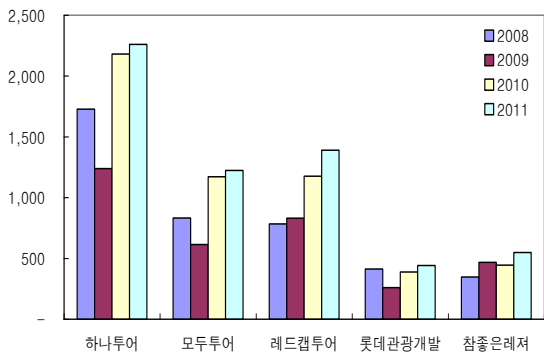
전상용 / 3773-8814

레드캡투어(038390)의 반란

지난해 여행업계는 외형은 증대되었으나, 일본 대지진, 태국홍수, 환율변동, 경기침체 등으로 이익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투어(039130), 모두투어(080160), 롯데관광개발(032350), 참좋은레저(094850)의 매출은 각각 3.8%, 2.8%, 13.9%, 23.4%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각각 12.4%, 13.3%, 적자지속, 17.2% 감소하였다. 그러나 레드캡투어(038390)의 경우 매출과 순이익 모두 각각 17.8%, 110.4% 증가하였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기준으로 보면 여행업계 만년 3 위였던 레드캡투어(1,389 억원/193 억원)가 2 위였던 모두투어(1,224 억원/139 억원)를 제치고 2 위자리에 등극하였으며, 1 위업체인 하나투어(2,261 억원/193 억원)와는 순이익기준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행업체 연도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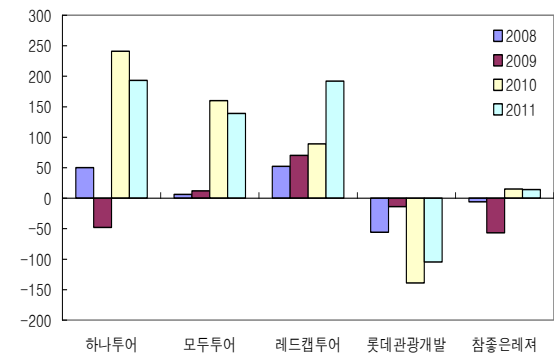
(단위:억원)



자료: 회사자료

여행업체 연도별 순이익 추이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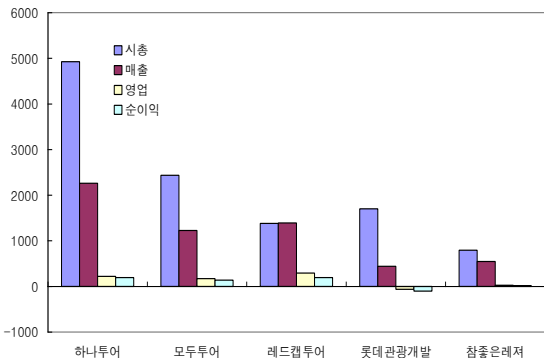
자료: 회사자료

레드캡투어가 가장 저평가

여행업체들의 Valuation 을 비교해보면, PER 기준(2/27 기준) 하나투어 26.4 배, 모두투어 18.4 배, 참좋은레저 56.7 배, 자유투어 24.1 배인 반면, 매출액 및 순이익기준 여행업체 2 위인 레드캡투어는 PER 7.2 배에 거래되고 있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여행업종 평균 PER 은 23 배에 거래되고 있다.

여행업체 시가총액 및 실적 비교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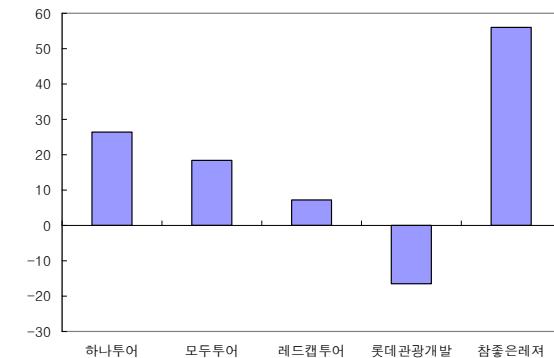


자료: 회사자료 및 SK 증권

주: 2011 년 실적기준, 2/27 일 추가기준

여행업체 PER 비교

(단위:배)



자료: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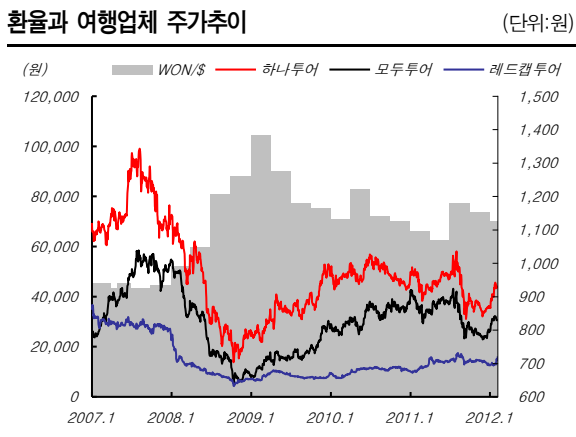
주: 2011 년 실적기준, 2/27 일 추가기준

여행업계 사업다각화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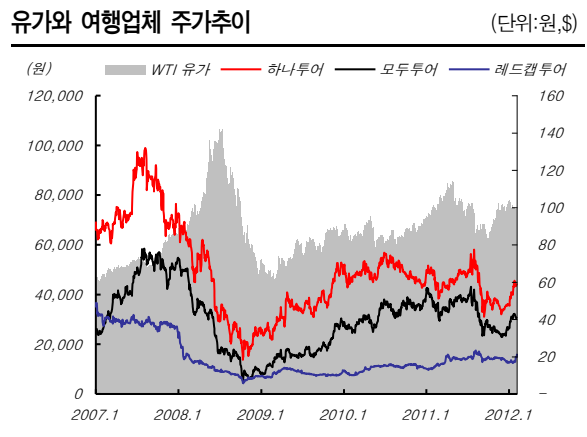
여행업체들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행업종에서 탈피하여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경우 종로쪽에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투어는 평창에 로하스파크 리조트를 건설 중이다. 레드캡투어는 렌터카, 참좋은레저는 자전거, 세종은 물류 등 다양한 사업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다.

유가보단 환율에 더 민감

여행업체 주가는 유가보단 환율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2007년 이후 환율과 여행업체의 주가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환율과 주가추이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가와 주가추이 관계는 2008년 이후 같은 추세로 동행하고 있다. 즉 여행객들이 항공유류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4분기 평균 환율이 1,140원, 1,125원으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이슈(전쟁, 지진, 홍수 등)만 없다면 여행수요는 꾸준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